

# '신의 선물' 특별전시회 ... 광주시민 6천여 명 참석 '대성황'



▲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에서 개최한 '신의 선물'展 내부 전경.

## 신천지 광주교회 "당신이 진정한 '신의 선물'입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지파 광주교회가 지난 3~6일 4일간 만물의 이치를 통해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신의 선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광주시민 6천여 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신의 선물' 특별전시회는 5월 한달간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에서 진행되며 어느 누구나 와서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에게 성전을 오픈하고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 처음 열리는 전시회이다. '신의 선물'이란 주제로 회화, 조각, 미디어 설치 등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으며, 전시회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의 유명 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시회는 총 5개의 테마관으로 나뉘어져 ▲신의 창조관: 경이롭고 신

비로운 세계, 가장 위대한 예술가 ▲화려한 인생관: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 그리고 그 끝의 두 길 ▲사후세계와 종교관: 종교가 말하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신의 약속과 비밀관: 신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 참된 행복 ▲편견과 선입견관: 편견(犬), 선입견(犬), 백문불여일견(犬)으로 구성됐다.

신이 창조한 신비한 '자연의 세계'부터 '공수래공수거', 인간을 향한 '신의 본심', '성경 속 천국 비밀' 그리고 감춰진 '신의 선물'까지, 주제별로 탄탄한 구성에 흡입력 있는 도슨트의 해설이 더해져 전시회를 둘러본 많은 관람객들은 수준 높은 전시 작품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휴와 겹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관람객들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회뿐 아니라 부대행사로 외부 버스킹 공연과 캘리그래피, 수제청·DIY향수 만들기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도 진행됐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키즈랜드, 푸드존이 운영되기도 했다.

## '신의 선물'展 풍경스케치 |



▲ '신의 선물'展 작품 <천국비밀>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이 '신의 선물'展에 참석해 베드로지파 성장세를 이우시게로 표현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가 개최한 '신의 선물'展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말씀대성회 ... 삶과 신앙의 해답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다! 와서 확인해보라!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이정우 강사가 말씀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이 2층 홍보관에서 베드로지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발자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홍보존에서 관람객들이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있다.

## "나에게 소중한 것은 천국 비밀이자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 베드로지파 광주교회는 지난 3~5일 3일 동안 전시회와 함께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전시회를 관람한 많은 시민들은 오전 11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오후 8시까지 하루 7차례 운영된 말씀대성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말씀대성회 강의로 나선 이정우 강사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신의 선물'이며,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다. 진정한 나를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행복은 내가 살아 있어야 실현될 수 있고 죽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정말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전했다.

이 강사는 "성경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다.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떠나가신 이유가 나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있다. 그 때 비로소 사망,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며, "지구촌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신천지 밖에 없다. 와서 들어보고 검증하시면 된다. 이제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신천지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말씀대성회가 진행된 2층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소개 및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발자취, 신천지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통해 신천지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친구의 초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성임(가명·48)씨는 강연을 듣고 지금껏 색안경을 끼고 신천지를 바라봤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친구가 처음 제게 '사람들이 하는 소리 믿지 말고,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라고 했을 때 '가봐야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모든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진절간 모습에 놀랐고,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였다. 그동안 오해했던 친구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스님은 "기대 이상으로 전시회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테마 중에 '사후세계와 종교관'을 통해 여러 종교가 말하는 사후세계 곧 천국과 지옥이 같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성호(가명·30) 씨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작품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느낌이 가슴에 확 와 닿았다. 나의 늙은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봤다"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말아야겠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은 "처음에는 적은 숫자로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던 베드로지파가 현재 4만여 명의 성도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몰려오는 이유는 육하원칙에 입각해 성경전반을 가르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광주 지역민들 모두 언제든지 성전에 오셔서 신천지에 수교회와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보신 그대로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